

#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벤처 재도약

# KO



## 협회 조현정 회장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를 지식산업구조로 변화시켜 혁신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며, 그 희망을 홍보하고 동참하게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사들 간에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벤처의 여러 세대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에게 잃었던 신뢰를 되찾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벤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 부의 벤처 재도약 선편 이후 코스닥 활황과 더불어 얼어붙었던 경제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의 재도약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벤처업계 내부에서도 다시 '뛰자'는 희망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움츠렸던 몸을 펴고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협회 6대 회장직을 맡게 된 조현정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조회장이 구상하는 협회와 벤처기업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벤처기업을 위한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지식기반형 산업인 벤처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네트워크는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회가 벤처기업의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실질적 매개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산업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거시적인 벤처산업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것이다. 개별기업의 작은 성공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성공이 파이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벤처와 산업별 벤처의 교류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둘째, INKE 조직을 활용한 글로벌기업 확산**  
 INKE 조직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더 단단하게 연계하여 글로벌벤처기업을 늘려 갈 것이다. INKE 코퍼레이션이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니즈를 발굴하여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2세대 벤처인들 간의 가교역할과 리딩벤처인과 신생벤처인을 이어주는 멘토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2세대 벤처인들을 중심으로 6개의 위원회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경험을 쌓게 할 예정이다. 또한 리딩벤처인과 신생벤처인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여 압축성장의 도움을 제공하고 신생벤처인이 경험 미숙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벤처기업의 사회적 신뢰회복**  
 벤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이다. 과거 벤처거품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우선,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문화재단'을 올 하반기 중 설립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벤처기업의 사회공헌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기술 창출과 나눔정신 발현 등 벤처의 핵심가치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다시 뛰는 벤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꿈과 희망을 주는 벤처**  
 벤처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 벤처는 첨단사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고도화를 주도해왔다. 글로벌 기술강국 실현의 핵심주체인 벤처는 향후 5년 이내에 GDP 10%, 수출 300억달러, 고용 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형적인 성과를 내는 것 외에도 벤처의 성공모델을 계속 발굴하여 창업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벤처, 이러한 벤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벤처 1호 기업' 비트컴퓨터를 1983년 대학 3학년 때 창업한 조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벤처산업의 중심에서 함께해왔다. 벤처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자기헌신을 요하는 협회 회장직을 흔쾌히 맡아 남다른 각오와 포부를 밝히는 조회장에게 벤처의 새로운 봄날을 기대해본다.

## 조현정 (趙顯定)

### 약력

- ◎ '57 경남 김해 출생
- ◎ '85 인학대 전자공학과 졸업
- ◎ '04 인학대 명예공학박사
- ◎ '83 비트컴퓨터 설립
- ◎ '05 비트컴퓨터 회장
- ◎ 벤처기업협회 회장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 ◎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 ◎ 조현정학술진흥재단 이사장
- ◎ 정보과학회 부회장
- ◎ 겸임교수(인학대, 이화여대)

### 수상경력

- ◎ '89 서울올림픽 공로표창 (체육부장관)
- ◎ '97 벤처기업대상 (통상산업부장관)
- ◎ '97 SW기술유공자표창 (정보통신부장관)
- ◎ '98 정보문화상(국무총리)
- ◎ '2000년 동탑산업훈장(대통령)